

학교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Followed by Environment Changes of School Libraries

조 미 아(Mi-Ah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비정규직 사서 업무에 관한 면담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3.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업무 인식 및
업무 현황 분석 |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 |
| II.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관한 선행연구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
| IV.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 |
| 1.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관련 법규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한 학교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관련 법규 및 사서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사서업무에 대한 면담 분석 및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 학교도서관 전문가

ABSTRACT

The study is to suggest th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upon changes of school libraries according to the 7th Korean Educational Curriculum. With this purpose, it investigates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allocation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and the interview of non-regular librarian about works. The study also compares job understanding of teacher-librarians, teachers managing school libraries and that of non-regular librarians in school libraries. It suggested the desirabl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Keywords: School Library, Teacher-Librarian, Teachers Managing School Libraries, Non-Regular Librarian, School Library Professional

*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miah100@naver.com)

• 접수일: 2009년 1월 4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위한 교육 개혁인 제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모형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과정은 물론,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주제를 파악하고 대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장 중심, 열린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¹⁾

7차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은 기존 교과서 중심의 틀을 벗어난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독서 논술교육의 활성화와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교수법 개혁을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한 도서관자료 탐구학습 등이 교육현장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담당교사들은 도서관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또한 사서교사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정보와 도서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해졌다. 교과 재량활동을 통하여 특정과목의 수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해져 교양 선택 과목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년간 전국에 6,000여개의 학교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는 최신 시설이 마련되고 컴퓨터가 보급되었으며 빔프로젝트 등 멀티미디어시설이 설치되어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인프라 중 시설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학교교육의 핵심인 장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해 2002년, 2006년에 실시한 현장평가분석에 따르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바로 전문 인력 부족이었다.³⁾

2008년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전국적인 배치율이 5.77%에 불과한 실정

1) 조미아, "학교도서관 환경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적 연구 : 기술가정과 도서관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정보관리, 제4권(2005), pp.169-186.

2) 박철완, 장윤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효과에 대한 연구 : 2003-05년도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143-160.

3) 독서신문, 2008년 10월 27일자.

이고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력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서는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고 일반 교사들과 대등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로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해 상의를 하고 도움을 주거나 교수 매체를 지원하는 교육전문가로서 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관한 연구는 사서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 배치 및 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교수매체전문가로서 사서교사에 관한 연구,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를 비교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관해 면담으로 조사한 연구와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정규직 사서를 면담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고용형태별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현황은 바람직한가?
2.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3.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고용형태별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학교도서관에 관한 논문에서는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다루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교사에게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교육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서교사라는 명칭에는 사서교사가 수업을 해야 한다, 혹은 아니다 외는 별도로 사서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⁴⁾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

는 경우에도 전문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으로 교육과정과 분리된 도서관 운영이 나타나고 있다.⁵⁾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제시된 전문운영인력 확보에 대한 교육당국의 중장기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순회사서, 도우미 활용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 운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⁶⁾ 특히 이병기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의 강화,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강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총 정원제에서 독립하여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거나 교사 증원 분야에서 일정 부분을 사서교사 지분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의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⁷⁾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중학교 교사,⁸⁾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⁹⁾¹⁰⁾에 의하면 일반 교사들은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사서교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연구는 한윤옥이 가장 먼저 개척적으로 연구한 분야이다. 협동교수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한 학교와 사서교사를 선정하여 실제의 협동교수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협동교수 프로그램은 교과 담당 교사와 사서교사가 교수과정의 완전한 동반자로서 계획과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 초등학생과 교사는 도서관 활용수업 경험의 유무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활용수업은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하지만 일반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인식은 극히

4) 한윤옥, “사서교사의 인간관계 전략,” 도서관, 제32권, 제4호(1997. 12), pp.131-132.
 5) 변우열, 한상완, 이병기,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pp.242-243.
 6) 송기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2), pp.27-40.
 7) 이병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법적 위상,” 2004년 전국사서교사 세미나 자료집, 2004.
 <<http://www.hakdo.net/policy.html?Table=policy3&mode=view&uid=4&page=9>> [cited 2008. 10. 2].
 8) 정옥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5), pp.1-88.
 9) 박경래,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5), pp.1-64.
 10) 이유경,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전공, 2006), pp.1-74.
 11) 이현숙, 학부모의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2007), pp.1-87.
 12) 한윤옥, “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제29권(1995. 12), pp.257-279.
 13) 이보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 경기지역 초등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8), pp.1-72.

저조하며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대부분이 사서교사와의 협력과 지원에 의한 수업 보다는 교과교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⁴⁾ 교과중심의 문화와 교사 사회의 패거리 문화 등은 사서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의 특수 교사로서 대부분 신입교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직사회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소외와 차별은 사서교사의 직업적 정체감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¹⁵⁾ 거의 모든 사서교사는 교육관련 학습 자료 및 정보 제공, 도서관 행사, 독서 및 논술 지도 제공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독서회 운영과 일반 교사와의 협력 수업 참여, 정보 활용 교육, 교사의 교재 연구 및 교재 작성에 대한 지원, 교수-학습 자료 직접 제작은 소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학교도서관 요소로 도서관 활용수업의 제도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시간의 확보,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체계 확립, 탄력적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¹⁷⁾ 사서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과 협력방법 및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⁸⁾

비정규직 사서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능력개발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과반수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인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¹⁹⁾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에 비해 정규직 사서의 직무자체, 급여, 안정감, 인간관계, 자아실현 요인에 대한 직무 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²⁰⁾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이 속한 학교급, 근무경력, 고용구분에 따라 인적자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구분(정규직·비정규직) 변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²¹⁾ 한편, 사서교사유무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행태 및 활성화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
- 14) 이영숙,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2008), pp.1-99.
 15) 김종성, "사서교사의 직무적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237-268.
 16) 권가람, 교수매체전문가로서 사서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7), pp.1-69.
 17) 이병기,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6), pp.85-105.
 18) 신승주,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2007), pp.1-60.
 19) 박정숙, 비정규직 사서가 인식한 학교도서관 현장문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5), pp.1-68.
 20) 김상미, 학교도서관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 전공, 2004), pp.1-44.
 21) 정종기,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및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166-184.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행태와 도서관시설 이용방법 숙지정도, 참고질의 정도, 도서관행사 참여 정도, 도서관 재이용 의사, 도서관 중요도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그동안 수행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대해 면담하여 조사한 연구와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관련 법규 및 사서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와 면담을 통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셋째,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역할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1.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관련 법규 분석

최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확정·발표했다(2008. 8.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정책목표 및 8대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두 번째로 제시된 추진 전략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 개선,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운영기반 강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미국을 벤치마킹해 학교도서관 자원을 활용, 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도서관협력수업 및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

22) 현혜정, 사서교사 유무가 학교도서관 이용행태 및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 전공, 2007), pp.1-54.

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서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고 사서교사(실기교사)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개정하여 분명한 법적기준 마련, 예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한 학교 급별 또는 학교규모별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사서교사 수요가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도서관부터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단계적 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표 1 참조).

〈표 1〉 문화관광체육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중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

II.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 개선 2.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3.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운영기반 강화 4.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 국가교육과정에 도서관활용수업 및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화 -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교사가 지도해야 할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는 전문단체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삽입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우선 배치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도서관 설치교에 최소 1명의 전담인력(사서교사 등) 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교사 수요가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도서관부터 사서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단계적 배치 방안을 마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지원기능보다는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이라는 교육목적과 내용에 기반, 교과교사와 협력을 통한 수업전개 등 교육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을 제도화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도서관활용수업 및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하며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를 신설하고 사서교사가 지도해야 할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는 전문단체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삽입하는 등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이고 현재 학교관련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이라는 업무영역의 한계 때문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내용 중 학교도서관 관련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교육과학기술

부와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는 형편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문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별도로 ‘학교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계획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현실을 바꾸고 지나친 사교육비 증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제정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20,824호, 2008.6.29)을 공포하였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성과를 제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법이 학교도서관 진흥법이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도서관계 단체들은 <학교도서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²³⁾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발의 당시부터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법안 수정, 통과 저지 운동까지 하였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 인력조항이 충돌하는 등 도서관에 관한 전문인들로부터 이미 심각할 정도로 미흡한 법률이고, 학교도서관 교육현장에 진흥은커녕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서교사만이 아니라 사서직원도 채용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즉 사서교사가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있는 한 대폭적인 확충이 힘들기 때문에 지방행정직 공무원 신분인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비정규직 사서의 확산과 정당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신설된 제12조1항의 <사서직원>이란 조항을 악용하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격이나 신분 계약조건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인력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권해석을 해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정당화하고 있다.²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 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독서 논술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서교사의 역할도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사서교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서직원 배치율이 28.8%에 달한다고 주장²⁵⁾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 사서교사나 정규직 사서만이 사서직원 배치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의 94%인 10,422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발표하지만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은 3,762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사서교사는 겨우 657명(배치율 5.77%)이다(표 2 참조). 초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현

23) <학교도서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 정책포럼 이렇고 학교도서관 관련 8개단체가 2005년 9월에 구성되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의무배치 등을 주장하여 왔다.

24) 이덕주, “경쟁을 통한 교육논리의 전제조건: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의 한계와 시행의 문제,” 국회도서관보, 제45권, 제9호(2008. 10), pp.79-85.

25)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황은 전체 학교도서관 배치 현황보다 열악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시도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사서교사 배치율이 21.9%인데 비하여 강원, 경남, 충남은 4% 미만이다. 즉, 문화적인 혜택과 시설이 부족해 사서교사가 더욱 필요한 농어촌이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2007년에 166명의 사서교사가 충원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에는 사서교사가 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9명의 사서교사가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규직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은 비정규직으로는 협력수업, 정보화수업 등 수준 높은 교육이 불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표 2〉 2008년 학교도서관 시도별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²⁶⁾

지역별	학교수	사서교사	사서교사 배치율 (%)	학생수 1500명당 1명기준 정규직 원 충족율 (%)
강원	646	23	3.56	15.8
경기	2042	87	4.26	7.4
경남	977	37	3.79	12.3
경북	979	43	4.39	20.8
광주	288	22	7.64	13.5
대구	430	23	5.35	9.0
대전	283	21	7.42	12.4
부산	602	36	5.98	11.3
서울	1240	199	16.04	21.9
울산	227	16	7.05	12.0
인천	456	31	6.8	12.6
전남	856	33	3.86	17.1
전북	760	34	4.47	17.3
제주	181	9	4.97	13.9
충남	740	23	3.11	14.9
충북	466	20	4.3	15.4
전국(계)	11,173	657	5.77	14.23

〈표 3〉 2008년 초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²⁷⁾

지역별	초등학교수	초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수	사서교사 배치율 (%)
강원	361	9	2.5
경기	1,094	36	3.3
경남	498	17	3.4
경북	497	23	4.6
광주	139	9	6.5
대구	211	9	4.3
대전	137	7	5.1
부산	293	15	5.1
서울	578	29	5.0
울산	116	2	1.7
인천	224	10	4.5
전남	453	14	2.4
전북	420	10	2.4
제주	106	3	2.8
충남	430	6	1.4
충북	256	10	3.9
전국(계)	5813	209	3.6

26)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관현황(2008년 4월1일 기준 중 서울지역 사서 교사 196명을 199명으로 수정,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제공).

27) 2008 초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제공.

2. 비정규직 사서 업무에 관한 면담 분석

일본의 경우에는 1개 학교 당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2.2명, 미국은 1.9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우 0.05명에 불과하다. 즉, 대다수의 학교도서관은 비정규직 사서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중 매해 불안하게 계약을 갱신하고 최저생계비에 불과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사서가 2,001명, 사서자격도 없는 비정규직이 1,001명이다.²⁸⁾

여기에서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인 사서의 현실이 어떠한지 K중학교 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연(가명, 40세)씨에게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학교, 학생, 교사, 도서관 활용수업, 학교행사, 사서의 업무주도성 및 책임감에 관해 면담으로 질문해보았다. 김수연씨는 사서교사 자격증과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7년 동안 정규직 사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학교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는 약 4년이 되었다. 근무해 본 학교도서관은 초등학교 도서관 2개관이고 현재는 중학교 도서관에서 2년째 근무 중이다.

(1) 학교와의 관계

김수연 : 비정규직이라 항상 주변인 같다. 특히 교직원 모임이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설령 참여를 하게 하더라도 별로 내키지 않고, 관심도 없다. 즉 남의 일 생각하듯 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애착이 전혀 없다. 교직원 회의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한다. 교직원 친목회 같은 행사에는 마지못해 참석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지 못한다.

(2) 학생과의 관계

김수연 :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 초등학교부터 사서가 있는 학교를 다녔어도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 그냥 자원봉사 이쯤마로 생각하여 중학교에 와서도 선생님이라기보다 이쯤마로 생각한다. 게다가 사서가 왜 선생님인지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학생도 있다. 이쯤마라는 호칭이 더 직업의식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있는데,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뭐라 해도 '개 닭 보듯 한다.'

28)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관현황조사자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집회 보도자료(2008년 11월 9일).

(3) 교사와의 관계

김수연 : 보수가 적고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동정심을 갖고 잘해주는 교사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사서교사에게는 막 대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서교사는 특별히 바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교사들의 잡무도 시키고(물론 부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별것도 아닌 잡무), 심지어 격을 두고 대하는 교사도 있다. 사서가 정식교사라면 이랬을까 싶다. 사서는 도서실 담당교사와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담당교사가 도서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서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탁하는 편이 많다. 또 도서실과 관련된 책임은 담당교사에게 있으니 사서에게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고, 교류가 잘 안되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때도 있다. 혹 담당교사가 다른 일로 바쁠 때면 정작 사서는 교류도 안되고 그렇다고 혼자 추진할 수도 없어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할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일이란 도서실 관련된 일을 말한다.

(4) 도서실 활용 수업

김수연 : 말이 도서실 활용수업이지 가만 보면 도서실에 와서 자유롭게 책 읽으라고 하고 교사는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면 성적처리나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 제대로 도서실에 대해 개념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만화 같은 쉬운 책을 보고, 책도 함부로 대한다. 그야말로 도서실 수업을 하면 도서실은 난장판이 된다. 그나마 사서가 좀 관여하여 애들에게 주의를 주면 좀 낫겠지만 그냥 방관하면 이수라장이 된다고 보면 된다.

사서 입장에서는 도서실 수업이 무의미하고 안했으면 좋겠다. 원래 도서실 활용수업 취지가 학생들을 위해서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도서실에 있는 백과사전이나 옥편 등을 활용해서 수업한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책 읽는 시간이다. 물론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훈련을 한다는 취지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도 1학년 정도, 2,3학년은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개관, 그리고 어차피 시청각기기(VTR)는 교실에도 있다. 굳이 도서실에 올 필요가 없다.

(5) 학교행사

김수연 : 수시로 도서실에서 학교행사를 한다. 교직원회의부터 학부모회의, 영어말하기대회, 논술대회, 나의 주장 발표회, 심지어는 행사 대기실, 외부학교와의 행사... 정말 어처구니없다. 대부분 학교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서실을 사용하는데 이리다보니 도서실 본래의 기능을 못할 때가 많다. '오늘은 행사관계로 문을 닫는다'는 등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때가 많다. 그 뿐 아니다. 학교행사를

하다보니 사서는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행사 진행하는 교사와 함께 행사준비를 해야 한다. 이럴 때는 뭐하러 왔나싶다. 정신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몸이 고달픈 순간이다. 게다가 사서가 없을 때 행사를 하면 행사 후에 누가 책임지고 도서실을 정리하지도 않고, 책이나 비품도 없어지기도 한다. 그야말로 오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말 각 학교에서 지양해야 할 일이다.

(6) 사서의 업무주도성 및 책임감

김수연 : 일단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급여 때문에 비정규 사서에게 책임감과 주도적 업무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서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그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년도 안되게 일을 하거나 길어야 1-2 있게 된다면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책임감은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이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일을 해도 공적은 담당교사나 학교에 돌아가고 사서는 보조 지원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성취감이 없다. 인어공주가 바다에 빠진 왕자를 구했지만 이웃나라 공주에게 공이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서를 전일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일제나 시간제로 하는 편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시험기간이나 학교행사가 있는 날에 도서관문을 닫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임금상황은 더 악화된다. 평생직장이라는 안정감이 없는 비정규직 사서들은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조건이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미련 없이 학교도서관을 떠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바뀌는 일도 흔하게 생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 서류를 기안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와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업무 인식 및 업무 현황 분석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인식과 업무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모임 여름 직무연수(2008. 8.6-8.9, 전주우석대)에 참여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 학교도서관운영과정(2008.7.28 - 2008. 8.1, 국립중앙도서관)에 참여한 비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해당

교육장을 찾아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질문 항목에 성실하게 응답한 정규직 사서교사 63부, 도서관담당교사 23부, 비정규직 사서 63부 등 총 149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기본적 특성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문항 중 다중응답문항이 있어 다중응답에 대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응답자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사서교사 63명(국·공립: 62명, 사립: 1명), 도서관담당교사 23명(국·공립: 20명, 사립: 3명), 비정규직 사서 63명(국·공립: 58명, 사립: 5명)으로 총 149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33명, 도서관 담당교사 3명, 비정규직 사서 43명 등 79명이었다.

학교도서관 담당경력은 정규직 사서의 경우는 최근 사서교사 수급을 반영하여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30명(47.6%), 1-3년 미만이 20명(31.7%)이었으며, 도서관 담당교사는 1-3년 미만과 6개월 미만이 각각 7명(30.4%)에 해당하였고 3-5년 미만도 6명(26.1%)로 나타나 경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비해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자격증별로는 정규직 사서교사 중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62명(98.4%), 실기교사 자격증 1명(1.6%)이었으며 정사서 1급 자격증을 소지자 9명(14.3%), 정사서 2급자격증 소지자 56명(88.9%),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1명(1.6%)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구 분	고용형태	정규직	도서관	비정규직	합 계(%)
		사서교사 수(%)	담당교사 수(%)	사서 수(%)	
운영주체별	국, 공립	62(98.4%)	20(87.0%)	58(92.1%)	140(94.0%)
	사립	1(1.6%)	3(13.0%)	5(7.9%)	9(6.0%)
학교급별	초등학교	33(52.4%)	3(13.0%)	43(68.3%)	79(53.0%)
	중학교	11(17.5%)	16(69.6%)	11(17.5%)	38(25.5%)
	고등학교	19(30.2%)	4(17.4%)	9(14.3%)	32(21.5%)
학교도서관 담당 경력	6개월 미만	30(47.6%)	7(30.4%)	16(25.4%)	43(35.8%)
	6개월-1년 미만	3(4.8%)	3(13.0%)	4(6.3%)	12(6.8%)
	1-3년 미만	20(31.7%)	7(30.4%)	17(27.0%)	28(29.7%)
	3-5년 미만	6(9.5%)	6(26.1%)	15(23.8%)	15(18.2%)
	5-10년 미만	4(6.3%)	0(0.0%)	11(17.5%)	9(10.1%)
자격증	사서교사 자격증	62(98.4%)	1(4.5%)	10(15.9%)	73(49.0%)
	실기교사 자격증	1(1.6%)	0(0.0%)	18(28.6%)	19(12.8%)
	준사서 자격증	1(1.6%)	0(0.0%)	34(54.0%)	35(23.5%)

자격증별	정사서 2급자격증	56(88.9%)	1(4.5%)	25(39.7%)	82(55.0%)
	정사서 1급자격증	9(14.3%)	0(0.0%)	3(4.8%)	12(8.1%)
	일반 교과 교사 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증 포함)	0(0.0%)	23(100%)	0(0.0%)	23(15.4%)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나.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관한 인식에 대한 내용

(1)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에 관해 정규직 사서교사 중 대다수인 51명(81%)은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사서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4명(6.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서교사가 6.3%로 나타났으며 '사서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3명(4.8%)이나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표 5 참조).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10명(43.5%),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9명(39.1%)고 사서와 사서교사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서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명(17.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35명(55.6%), '사서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13명(20.6%),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10명(15.9%), '사서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명(6.3%), 기타 1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에 대한 인식

자격증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		51(81%)	9(39.1%)	10(15.9%)	70(47.3%)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6.3%)	10(45.5%)	35(55.6%)	49(33.1%)
사서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6.3%)	0(0.0%)	13(20.6%)	17(11.5%)
사서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될 수 있다.		3(4.8%)	4(17.4%)	4(6.3%)	11(8.1%)
기 타		1(1.6%)	0(0%)	1(1.6%)	2(4.1%)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8(100%)

(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는 '매우 필요하다' 50명(79.4%), '필요하다' 13명(20.6%) 순으로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는 모두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 담당교사는 '매우 필요하다' 19명(82.6%), '필요하다' 3명(13.0%)로 나타나 95.6%가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도서관담당교사도 1명(4.3%)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는 '매우 필요하다' 34명(54.0%), '필요하다' 21명(33.3%)로 나타나 비정규직 사서의 87.3%가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보통이다'와 '필요하지 않다'도 각각 4명(6.3%)으로 응답해서 정규직 사서교사와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사서교사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0(0.0%)	0(0.0%)	0(0.0%)
필요하지 않다.	0(0.0%)	1(4.3%)	4(6.3%)	5(3.4%)
보통이다	0(0.0%)	0(0.0%)	4(6.3%)	4(2.7%)
필요하다.	13(20.6%)	3(13.0%)	21(33.3%)	37(24.8%)
매우 필요하다.	50(79.4%)	19(82.6%)	34(54.0%)	103(69.1%)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3)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시(정보와 도서관 교육)'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수-학습지원에서 교수-학습 참여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개발'을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이라고 응답한 사서교사는 46.0%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사서는 21.0%, 도서관 담당교사는 19.0%로 응답해 '교수설계 및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개발'에 대한 고용형태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복수응답 가능)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사서교사역할, 자질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시('정보와 도서관 교육')	51(81.0%)	11(52.4%)	24(38.7%)	86(58.9%)
교수 - 학습지원에서 교수 - 학습 참여로	48(76.2%)	15(71.4%)	48(77.4%)	111(76.0%)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교사	46(73.0%)	12(57.1%)	33(53.2%)	91(62.3%)
멀티미디어 자료의 비치, 관리 및 정보봉사	43(68.3%)	14(66.7%)	27(43.5%)	84(57.5%)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개발	29(46.0%)	4(19.0%)	13(21.0%)	46(31.5%)
응답자수	63(100%)	21(100%)	62(100%)	146(100%)

(4)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에 관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독서수업 진행 능력’을 들었다. 한편, 도서관 담당교사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행사프로그램 운영 능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관계’를 40%이상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는 본인들이 일반교과 교사이므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표 8〉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복수응답 가능)

학교도서관담당자에게 필요한 능력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독서수업 진행능력		33(52.4%)	8(36.4%)	30(50.8%)	71(49.3%)
교육과정 지원능력		29(46.0%)	5(22.7%)	29(49.2%)	63(43.8%)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관계		29(46.0%)	3(13.6%)	26(44.1%)	58(40.3%)
행사프로그램 운영 능력		19(30.2%)	13(59.1%)	29(49.2%)	61(42.4%)
리더쉽		14(22.2%)	1(4.5%)	14(23.7%)	29(20.1%)
교장선생님과의 관계		10(15.9%)	1(4.5%)	15(25.4%)	26(18.1%)
최신 기자재 사용능력		9(14.3%)	4(18.2%)	8(13.6%)	21(14.6%)
컴퓨터 활용능력		8(12.7%)	3(13.6%)	14(23.7%)	25(17.4%)
기타		4(6.3%)	3(13.6%)	3(5.1%)	10(6.9%)
응답자수		63(100%)	22(100%)	59(100%)	144(100%)

다. 학교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

(1)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담당자 유형

정규직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서교사 혼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가 57명(9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교사가 있어도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있는 경우가 4명(6.3%)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교사가 있는 학교는 ‘사서교사나 계약직 사서가 없이 일반 교과목교사 혼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운영한다’ 15명(65.2%)으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사서가 있는 학교는 ‘일반 교과목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약직 사서가 도서관을 운영한다’가 가장 많은 52명(82.5%)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담당자 유형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관 운영				
사서교사(사서) 혼자 학교도서관을 담당한다.	57(90.5%)	0(0.0%)	3(4.8%)	60(40.3%)
일반 교과목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약직 사서가 도서관을 운영한다.	0(0.0%)	6(26.1%)	52(82.5%)	58(38.9%)
사서교사나 계약직사서가 없이 일반 교과목교사 혼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운영한다.	0(0.0%)	15(65.2%)	0(0.0%)	15(10.1%)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있다.	4(6.3%)	0(0.0%)	5(7.9%)	9(6.0%)
기타	2(3.2%)	2(8.7%)	3(4.8%)	7(4.7%)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2)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도서관 담당교사보다 정규직 사서교사의 수행하는 업무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예산편성’에서 정규직 사서교사는 92.1%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9.5%만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2.6%라는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경영계획’은 69.8%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도서반 등 학생특별활동 지도’는 55.2%, ‘독서교육’은 45.7%,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45.2%의 차이로 사서교사가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시된 15개의 업무 중에서 정규직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과반수는 ‘학교도서관 경영계획’,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서’, ‘도서관 이용교육’,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 ‘학교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의 관리, 이용’, ‘학교도서관 예산편성’, ‘독서교육’, ‘교사들의 도서관활용수업 지원’, ‘도서반 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등 9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과반수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서’, ‘학교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의 관리, 이용’, ‘도서관이용교육’,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 등 4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교육’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4.8%만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도서관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지도’는 도서관 담당교사가 34.8%, 사서교사 17.5%로 나타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논술지도’에 많은 업무를 할애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사서는 ‘논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 독서 상담’의 경우에는 정규직 사서교사의 19%, 도서관 담당교사의 8.7%가 수행하나 비정규직 사서는 단 1.6%만이 ‘일반 학생 독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수행하는 업무(복수응답 가능)

실제 수행하는 업무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관 경영계획		63(100%)	20(87.0%)	19(30.2%)	102(68.9%)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서		63(100%)	20(87.0%)	58(92.1%)	141(95.3%)
도서관이용교육		63(100%)	18(78.3%)	44(71.0%)	125(84.5%)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		63(100%)	19(82.6%)	34(54.8%)	116(78.4%)
학교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의 관리, 이용		62(98.4%)	18(78.3%)	57(91.9%)	137(92.6%)
학교도서관 예산편성		58(92.1%)	16(69.6%)	6(9.5%)	80(54.1%)
교사들의 도서관활용수업 지원		53(84.1%)	14(60.9%)	29(46.8%)	96(64.9%)
도서반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48(76.2%)	15(65.2%)	13(21.0%)	76(51.4%)
독서교육		43(68.3%)	16(69.6%)	14(22.6%)	73(49.3%)
도서관 자원봉사 지도		31(49.2%)	7(30.4%)	14(22.6%)	52(35.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이용제공		16(25.4%)	4(17.4%)	4(6.5%)	24(16.2%)
교사들과의 도서관협력 수업		15(23.8%)	10(43.5%)	5(8.1%)	30(20.3%)
일반 학생 독서상담		12(19.0%)	2(8.7%)	1(1.6%)	15(10.1%)
논술지도		11(17.5%)	8(34.8%)	0(0.00%)	19(12.8%)
정보활용교육		3(4.8%)	0(0.00%)	0(0.00%)	3(2.0%)
응답자수		63(100%)	23(100%)	62(100%)	148(100%)

(3)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

정규직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의 과반수 이상이 '장서관리 계획' 60명(95.2%), '교육서비스 계획' 42명(66.7%), '홍보 및 마케팅 관리 계획' 40명(63.5%), '인적자원 관리 계획' 34명(54.0%) 등 4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교사의 과반수가 수행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사서는 '장서관리 계획' 47명(74.6%)만을 과반수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는 장서관리 계획에서 67.8%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교육서비스 계획과 홍보 및 마케팅 관리에서 각각 55.4%의 차이, 인적자원 관리 39.7% 차이, 정보서비스 계획: 서지정보 제공, 교수매체 협력에서 33.2%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가 도서관담당교사보다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육서비스 계획에서 52.4%의 차이, 인적자원 관리계획에서 39.5%, 홍보 및 마케팅 관리 계획에서 38.1%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가 비정규직 사서보다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조).

〈표 11〉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복수응답 가능)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장서관리 계획		60(95.2%)	17(27.4%)	47(74.6%)	124(83.8%)
교육서비스 계획		42(66.7%)	7(11.3%)	9(14.3%)	58(39.2%)
홍보 및 마케팅 관리 계획		40(63.5%)	5(8.1%)	16(25.4%)	61(41.2%)
인적자원 관리 계획		34(54.0%)	9(14.5%)	9(14.3%)	52(35.1%)
정보서비스 계획: 서지정보 제공, 교수매체 협력		27(42.9%)	6(9.7%)	15(23.8%)	48(32.4%)
시설계획		24(38.1%)	10(16.1%)	9(14.3%)	43(29.1%)
조직관리 계획		20(31.7%)	6(9.7%)	2(3.2%)	28(18.9%)
정보윤리관리 계획		6(9.5%)	0(0.0%)	0(0.0%)	6(4.1%)
계획하는 것이 없다		0(0.0%)	4(6.5%)	11(17.5%)	15(10.1%)
기타		0(0.0%)	0(0.0%)	1(1.6%)	1(0.7%)
응답자수		63(100%)	22(100%)	63(100%)	148(100%)

(4)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내용

(가) 학교도서관 진행 경험 유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은 도서관담당교사는 22명(95.7%), 정규직 사서교사는 44명(69.8%), 비정규직 사서는 25명(41%)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학교도서관 진행 경험 유무

도서관활용수업 진행여부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예		44(69.8%)	22(95.7%)	25(41%)	91(61.9%)
아니오		19(30.2%)	1(4.3%)	36(59%)	56(38.1%)
응답자수		63(100%)	23(100%)	61(100%)	147(100%)

(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유형

정규직 사서교사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유형은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26명(60.5%)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20명(46.5%), ‘사서교사가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준비해주는 수업형식’이 12명(2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학교도서관활용 수업 유형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업형식		26(60.5%)	3(14.3%)	9(36.0%)	38(42.7%)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		20(46.5%)	18(85.7%)	13(52.0%)	51(57.3%)
사서교사가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준비해주는 수업형식		12(27.9%)	0(0.0%)	6(24.0%)	18(20.2%)
수업계획, 단위설정, 학습 자료 준비와 수업을 사서교사와 함께 진행하고 평가하는 수업형식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1(4.0%)	1(1.1%)
응답자수		43(100%)	21(100%)	25(100%)	(100%)

(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원기반 학습이 어려운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도서관 담당교사는 ‘교실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탐구, 토론, 발표 등의 다양한 수업형식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수업형식 기법을 습득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이 요구되며 교과목 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할 때 교과자료 준비, 교수 매체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표 14 참조).

〈표 14〉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가능)

활용수업진행중 어려웠던 점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원기반 학습이 어려운 점		23(52.3%)	8(38.1%)	11(47.8%)	42(47.7%)
교실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탐구, 토론, 발표 등의 다양한 수업형식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점		17(38.6%)	10(47.6%)	6(26.1%)	33(37.5%)
사서교사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교과자료 준비, 교수매체 개발 등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점		7(15.9%)	8(38.1%)	2(8.7%)	17(19.3%)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부족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9(20.5%)	4(19.0%)	8(34.8%)	21(23.9%)
기타		3(6.8%)	0(0.0%)	4(17.4%)	7(8.0%)
응답자수		44(100%)	21(100%)	23(100%)	88(100%)

(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정규직 사서교사의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교도서관 자료 부족'과 '학교도서관 시설 부족'을 많이 지적하였으나 도서관담당교사는 '업무가 많아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준비하기 어려움'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도서관 담당교사의 학교도서관 업무를 경감해주고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며 자료 구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표 15 참조).

〈표 15〉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가능)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도서관 활용수업이 어려운 이유				
학교도서관 자료 부족	11(42.3%)	0(0.0%)	13(34.2%)	24(31.2%)
학교도서관 시설 부족	8(30.8%)	2(15.4%)	7(18.4%)	17(22.1%)
업무가 많아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5(19.2%)	10(76.9%)	10(26.3%)	25(32.5%)
사서교사가 없어서 자료준비 등 협력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0(0.0%)	3(23.1%)	6(15.8%)	9(13.0%)
기타	9(34.6%)	1(7.7%)	17(44.7%)	27(35.1%)
응답자수	26(100%)	13(100%)	38(100%)	77(100%)

(5) 일반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정규직 사서교사의 83.1%와 도서관 담당교사의 77.8%, 비정규직 사서의 72.2%는 일반 교사들에게 '모든 소장 목록 제공'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33.9%, 도서관 담당교사의 50%, 비정규직의 35.2%가 '매체 활용 수업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담당교사가 매체활용수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VOD와 같은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교수 매체 제작에 한 교육(연수)', '전자책 제공', '교수 매체 제작(가공)지원', '전자저널 제공(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일반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복수응답 가능)

고용형태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관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일반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든 소장 자료 목록 제공	49(83.1%)	14(77.8%)	39(72.2%)	102(77.9%)
매체 활용 수업 지원	20(33.9%)	9(50%)	19(35.2%)	48(36.6%)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10(16.9%)	1(5.6%)	11(20.4%)	22(16.8%)
VOD와 같은 동영상 제공 시스템	5(8.5%)	6(33.3%)	14(25.9%)	25(19.1%)

교수 매체 제작에 관한 교육(연수)	3(5.1%)	0(0.0%)	0(0.0%)	3(2.3%)
전자책 제공	3(5.1%)	0(0.0%)	6(11.1%)	9(6.9%)
교수 매체 제작(가공)지원	1(1.7%)	0(0.0%)	0(0.0%)	1(0.8%)
전자저널 제공(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1(1.7%)	0(0.0%)	2(3.7%)	3(2.3%)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1(1.7%)	0(0.0%)	3(5.6%)	4(3.1%)
응답자수	59(100%)	18(100%)	54(100%)	131(100%)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관련 법규 및 사서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하였고,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정규직 사서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 (1)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관련 법규가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규직 사서교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정보를 이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산어촌 및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도서관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지역간 학습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세운 문화관광체육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 (2) 비정규직 사서와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교사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학생은 비정규직 사서를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서의 지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정규직 사서들은 교사들의 잡무를 처리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급여 때문에 비정규 사서에 게 책임감과 주도적 업무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3)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인식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설문지로 조사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는 수행하는 업무 종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의 과반수는 '학교도서관 경영계획',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서', '도서관 이용교육',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 '학교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의 관리, 이용', '학교도서관 예산편성', '교사들의 도서관활용수업 지원', '도서관 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독서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의 과반수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서', '학교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의 관리, 이용', '도서관 이용교육',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도서관 예산편성'에서 정규직 사서교사는 92.1%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9.5%만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경영계획'은 69.8%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도서관 등 학생특별활동 지도'는 55.2%, '독서교육'은 45.7%,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45.2%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 정규직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는 '장서관리 계획' 60명(95.2%), '교육서비스 계획' 42명(66.7%), '홍보 및 마케팅 관리 계획' 40명(63.5%), '인적자원 관리 계획' 34명(54.0%) 등 4개의 업무를 과반수가 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과반수가 수행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사서는 '장서관리 계획' 47명(74.6%)만을 과반수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은 도서관담당교사는 22명(95.7%), 정규직 사서교사는 44명(69.8%), 비정규직 사서는 2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교사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유형은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26명(60.5%)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20명(46.5%), '사서교사가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준비해주는 수업형식'이 12명(2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는 도서관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에 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사서교사의 83.1%와 도서관 담당교사의 77.8%, 비정규직 사서의 72.2%는 일반 교사들에게 '모든 소장 목록 제공'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33.9%, 도서관 담당교사의 50%, 비정규직의 35.2%가 '매체 활용

수업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담당교사가 매체활용수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VOD와 같은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교수 매체 제작에 한 교육(연수)', '전자책 제공', '교수 매체 제작(가공) 지원', '전자저널 제공(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업무 인식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 운영 전문가는 학교도서관 경영계획, 예산편성, 장서관리 계획, 교육서비스 계획 등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사들의 도서관 활용수업 지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이용제공, 교사들과의 도서관협력 수업 등 일반교과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수학습의 능동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독서교육, 논술지도, 정보활용 교육 등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업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의 능동적인 협력자,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지적한 '독서수업 진행능력'을 위하여 대학 교과과정에 독서지도론의 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현장의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에 관한 재교육 등의 연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